

우리 신화, 그 탈주-담론의 심층사회학*

- 바리데기 신화 다시쓰기

최 윤 정**

1. 바리데기 신화 다시 읽기
2. 바리데기, 그 문명과 秀史의 담론
 - 1) 문명적 담론의 확장과 은폐
 - ① ‘遺棄-버려짐’의 화소-타자화 양식과 탈아 양식
 - ② ‘幽界’의 화소-죽음의 위계적 하방세계와 생명 연대적 존재계
 - ③ ‘효’-화소-제도화된 희생의 덕목과 자연스러운 삶의 본능
 - 2) 秀史적 담론의 발견과 확장
 - ① 여성-탈주자: 죽음에 이르는 문명·국가 가로지르기
 - ② 타자-되기: 번역될 수 없는 타자들과 소통하는 매체
 - ③ 자아-찾기: 사랑의 발견과 모성의 완성
 - ④ 국가의 거부: 국경 없는 타자들의 ‘나라’
3.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서사무가로 전승되고 있는 바리데기 신화의 이본들을 다시 읽고, 현대문학장의 다양한 바리데기 텍스트들이 어떻게 다시 쓰여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바리데기 신화 ‘다시 읽기’는 이본들의 특징적 차이를 세밀하게 읽어냄으로써 그동안 공통화소에 의해 단일·보편적 문법으로 의미를 분석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문명적 시선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4-A00118).

** 서울대학교 박사후 과정 연구원

의해 은폐되었던 바리데기의 의미들을 추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문명의 제도화된 시선을 통해 우리는 바리데기 신화의 원형 의미를 훼손하고 잘못 읽고 있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기-버려짐’의 화소나 ‘유계’ 화소, 그리고 ‘효’ 화소는 거의 모든 이본들의 중요화소로, 그 의미를 천착해봄으로써 우리 신화 바리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리의 빼어난 역사적 가치체계를 환기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또한 바리데기 신화는 역사시대 많은 문명적 폐해를 넘어갈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만한 여러가지 신화소들을 배태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소들을 발견하여 현대 문학장에서 바리데기 다시 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송경아의 <바리 3부작>, 그리고 김선우의 동화 『바리공주』, 그리고 강은교의 「바리데기의 여행노래」가 그것이다. 이들 현대 텍스트들은 각각 바리데기 신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화소들 중 현대적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초점화하여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여성-탈주자, 타자-되기, 자아-찾기, 국가거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화소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텍스트들은 현대의 문제를 심도 있게 제공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바리데기의 이본들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유기-버려짐, 유계, 효, 여성-탈주자, 타자-되기, 자아-찾기, 국가의 거부, 바리데기, 문명과 수사(秀史)

1. 바리데기 신화 다시 읽기

바리데기는 ‘오구곳’에서 가창되는 무가로 전국적인 전승을 보이는 대표적 서사무가다. 명칭에 대해 서울에서는 바리공주, 함경도에서는 칠공주, 오기풀이, 경상도·전라도에서는 바리데기, 오구물림 등¹⁾으로 불린

1)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1』, 민속원, 1997, 12쪽.

다. 이렇게 구송되는 곳의 명칭은 제각각으로 다르지만, 바리데기의 구송 목적이 망인천도라는 점과 ‘버려짐’의 내용이 내포된 신화란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바리데기를 읽을 때, ‘망인천도’와 ‘버려짐’에 관련된 초현실적 유계 공간과 ‘망인천도’의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즉 죽음의 존재들과 인연을 맺게 하는 ‘효’이행의 의미들을 초점화해서 바리데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망인천도’와 ‘버려짐’은 바리데기의 중요 화소이면서, 곳의 연행 형식의 측면에서 ‘풀이’와 ‘탈아’의 의미와 연계된다.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진 이 곳의 양식은 망인의 한 맺힘을 풀어 저승으로 인도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속박의 굴레와 고통·고난, 박해를 풀어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한편, 이는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직접적 관계성이란 마치 샤만이 자신의 혼을 자기 육체로부터 직접 분리시켜, 이 혼이 타계의 신령이나 정령을 찾아 직접 접촉하는 것과 같이, 또는 반대로 신령·정령을 자신에게 불러들이거나, 그들과 직접 대화해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이 자아의 세계를 비우고 타자들에 신들리는 과정²⁾을 말하는 데, 이는 자아의 타자되기 양식으로 ‘버려짐’으로 인해 자연이나 여러 신이한 타자적 존재들에 의해 길러짐으로써 타자들과 소통하고 타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되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들에 대한 시야의 확대는 결국 바리데기로 하여금 인간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죽음’을 관장하는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부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지금까지의 바리데기에 대한 논의는 서사무가 바리데기의 구조연구³⁾

2) 영혼은 物(肉)에 머물고 있는 한, 물을 살리고 있으나, 물이 사멸하고 없어도 이것을 넘어서 독자로 계속 존재하므로, 초자연적 존재라고도 불리며, 보통 사람에는 불가시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영혼은 인간과 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민족에 있어서,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식물에서 자연 현상에까지 인정되고 있다.(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샤머니즘의 이해』, 박이정, 1999, 74쪽)

3)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이러한 논의들은 서사단락을 나누어 바리데기 서사의 구조를 통해 의미를 부여

와 다른 서사무가, 즉 당금애기나 고소설 심청전과의 비교연구⁴⁾ 등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이러한 바리데기 신화는 현대 문학장에서 여러 장르에 걸쳐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용과 변용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연구한 논의들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현대문학장에서 바리데기 신화가 반복적으로 호명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의의 2장에서는 바리데기 신화의 여러 변이형들에 깃들인 문명사적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즉 변이형들이 생산되면서 우리 고유의 신화체계에 덧씌운 외래적 사유체계를 고찰해봄으로써, 바리데기 신화의 원형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신화가 역사 시대를 건너오면서 불교나 유교와 같은 여러 외래 체계들과 습합된 지점들을 판독하고 걷어내는 작업의 하나로써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⁵⁾. 또한 3장에서는 현대 문학장에서 현대문학으로 다시 생산되고 있는 바리데기 신화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삶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근대성이나 식민성의 문제들을 우리 신화가 어떻게 문제시하고 담론화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신화의 내재적 의미, 잠재적 의미들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2. 바리데기 신화, 그 문명과 秀史의 담론

바리데기 신화는 구술된 양식으로 채록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이 이본들은 각기 다른 서사단락을 가지거나 공통의 서사단락을

하거나, 그 구조를 통해 건국신화나 다른 무속신화, 남성신화 등과의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바리데기의 특징적인 면모를 제공하게 된다.

- 4)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이러한 연구는 여성 주인공의 정체성 탐색에 방점을 둬으로써 바리데기의 여성주의적 관점을 부각시키게 된다.

- 5) 우리의 무가는 현재 유·불·도의 오랜 종교적 습합과 전승물의 윤색으로 그 원형의 재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바리데기의 경우 그 전반이 불교적인 윤색의 것이지만 그 주제에서는 또 효심의 유교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연구』, 세종출판사, 2005, 158-165쪽).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통된 화소의 이형태들이 많이 존재한다-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가진다. 그러한 이본마다의 특징적 내용의 차이는 부계 중심적 사회제도를 강화하는 텍스트로서 문명적 관점을 확산시키는 담론으로 읽힐 수 있거나, 또는 다차원적 생명의 존재들을 발견하는 텍스트로서 수사적 관점, 다시 말해 빼어난 우리 고유의 역사, 사유체계를 표상하는 담론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의 문화적 백지도 상황을 주장하던 식민사학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방식이 된다⁶⁾. 문명의 역사는 진보를 지향하며, 많은 타자들을 만들어 온 역사이다. 이 문명적 관점에 의해 배제된 타자들은 자연, 여성, 하위계급, 죽음, 또는 습속이나 우리 민간신앙이 보유한 사상체계와 같은 비합리적 세계 등이라 할 수 있다. 수사, 즉 우리가 쫓피고 열매 맺었던 아름다운 고대적 사유의 역사적 관점은 앞에서 제기한 타자들을 다시 호명하여 그들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문명사가 진행해온 무의식적인 위계와 배제의 시스템을 해체하려는 시도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신화 바리데기가 문명을 극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한 텍스트임을 포착하게 된다.

(1) 문명적 담론의 확장과 은폐

문명적 담론은 에로스적 인간의 본능을 억압해 왔다. 문명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영원한 억압에 기초하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누구에게나 승인되어 왔다⁷⁾. 이 에로스적 인간의 본능은 바타이유에 따르면 삶의 본능으로 승고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에로스적 생의 에너지는 문명에 의해 억압되고 파괴되어 왔던 것이다. 문명적 시선에 의한 에

6) 임재해, 「한국신화의 주체적 인식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18-19쪽.

이러한 수사적 관점은 수입된 신화이론으로 우리 신화의 정체를 밝히려는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신화나 문화의 외래 도래설을 극복하고 우리 신화의 고유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7) 허버트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 1994, 21쪽.

로스적 생의 에너지에 대한 영구적인 억압은 삶의 본능을 약화시키고, 파괴본능을 강화하고 해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삶의 본능, 또는 생의 에너지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양식으로서 문명은 역사시대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건설된다. 결국 역사시대의 문명적 시선은 생의 에너지, 삶의 본능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으로써 현실을 구성하는 모든 양식들에 파생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화의 원형은 역사 이전시대의 생의 에너지, 삶의 본능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문화양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화에 대해 그러한 신화 원형의 의미를 문명적 시선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화를 올바르게 읽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바리데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전체 서사를 몇 개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이본들의 차이를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거나-이러한 논의는 무속권을 확정하는 논의로 의미가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그러한 무속권의 차이가 이 이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속의 사상체계와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분절된 이야기 단위들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경향이 대체적이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바리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 구성요소를 각 이본을 통하여 추출하여 그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바리데기의 개별 판본들의 가치와 의미를 희석시키고, 랑그적 차원으로 바리데기의 내용을 단일적, 보편적 문법으로 묶어냄으로써 다차원적인 의미의 결들이 내포하고 있는 저 역사시대를 거스를 만한 우리 신화의 수사적 의미를 놓치게 한다⁸⁾. 이돈화는 『개벽』을 통해 인류 전체를 권력에 의한 억압의

8) 사실 구비서사시 한 편을 어느 한 시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한 편의 구비서사시에도 문명사의 여러 단계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이경하, 「한국 구비서사시의 ‘문명’기억과 젠더정치」,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2012.4, 21쪽). 이 논의에서 필자는 <바리데기> 서사시에 ‘원시적 대모신상’과 ‘중세적 종속상’이 혼재해 있는 것을 제시한다. 이는 문명사의 여러 단계가 섞이면서 원래 원형을 변형시키고, 이질적인 사상체계들이 혼재하는 텍스트로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역사라 했다. 이러한 억압의 역사 너머의 거대한 생명력이 출렁이는 세계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역사를 秀史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를 향한 모든 노력들, 또는 모든 기록들은 문명적 역사의 병폐를 드러내고, 문명적 역사시대의 병폐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양식이 된다. 그러한 문명의 시선에 의해 은폐되었던 우리 신화 바리데기의 다양한 이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결들을 秀史적 관점으로 읽어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① ‘遺棄-버려짐’의 화소-타자화 양식과 탈아 양식

지금까지 채록된 바리데기 異本은 대략 88편 정도이며, 네 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⁹⁾. ‘버려짐’의 화소¹⁰⁾는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그동안 이 ‘버려짐’은 여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버려진 존재로서의 여성¹¹⁾”으로 반복 기술되면서 바리데기는 가부장제의 희생양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논의들은 유교적 지배질서를 비판하는 지점으로 바리데기 신화의 의미를 탐색하고는 있으나, 가부장제에 희생되는 바리데기를 부각시킴으로써 부계 중심사회의 사회제도를 강화하는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 아버지의 법, 명령을 이행하는 바리데기의 행보를 타율적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읽게 되면 결국 가부장제적 사회의 모순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바리데기가 ‘버려지는 장소’나 버려진 바리데기를 보살피는 주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하게 한다.

- 9)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1·2』, 민속원, 1997, 홍태한·이경엽,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3』, 민속원, 2001,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 4』, 민속원, 2004.
- 10) 본고에서는 ‘화소’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야기의 생성·전승·변이에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설화의 작은 요소로 파악했다(임재해, 「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986 참조).
- 11) 김행숙, 「여성-되기와 ‘시-하기’-김혜순의 시론에 대한 검토」, 『인문과학논집』 제18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86쪽.

에 ‘버려짐’으로써 드러나는 바리데기의 존재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리데기는 버려짐으로써 국가적 제도와 틀 내부에서 길러진 언니들과 다른 존재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가 기르지 않은 딸이 됨으로써 바리데기는 국가적 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또한 여성/남성, 자연/문명, 본능/이성, 동물/인간 등의 위계적 이분법적 제도가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젠더화되지 않는 존재로 남는다. 바리데기 이본들을 통해 볼 때, 바리데기가 버려지는 장소나 바리데기를 보살피는 주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버려지는 장소는 바리데기의 탈경제적 존재성을 표상한다. 이본들에서 바리데기가 버려지는 장소는 다음과 같은 짐승우리, 후원, 뒷동산, 말우리, 쑥대밭, 갈늬, 용늬, 피바다, 디딤밭, 대천바다, 시냇물, 배비랑산, 버드랑산, 유사강, 동해수, 청천강, 깊은 산골, 산골 등의 자연공간이나 옥녀천이나 시영산 바우밑, 또는 황천강, 새가 못가는 곳과 같은 환상공간이다. 이러한 자연이나 환상공간은 상징계적 현실 너머의 세계이다. 우리는 고대의 신화적 주인공들 중에 내다버려지거나 내쳐지는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주몽이나 박혁거세, 또는 유화 같은 신화적 인물들은 버려지고 내쳐짐으로써 인간과는 다른 그 신이한 존재성을 확인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버려지는 존재 자체가 현실을 비현실의 공간, 또는 유계의 공간을 출현시키는 매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무속신화에서 포착되는 공간은 다층적 공간이다. 현실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지하의 세계가 공존하며 다신적 자연신관에 따른 성역(聖域)화 된 공간들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현실과는 다른 유계 공간, 성역화 된 공간에 버려진 바리데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양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길러진다. 먼저 바리데기를 양육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한 존재들이다. 까막까치나 학, 천사, 거북 등이 바리데기를 보살피거나 용왕과 석가세존의 인도 하에 공덕이 많은 비리공덕 할미와 할아비 손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버려짐’은 인간으로서의 자아, 문명인으로 출현하는 자아의 잠재성으로부터 벗어나 성역화 된 자연적 존재, 또는 신이한 초인간적 존재로서의 바리데기의 의미

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버려짐’의 의미를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여성의 타자화 지점으로 읽어내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탈아’적 존재성의 확인으로 읽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인간세계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됨으로써 바리데기는 신격화할 계기를 획득하게 된다.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고 젠더화 되는 여성적 존재는 그 역사시대의 문명 세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에 비하여 문명의 상징질서로부터 ‘버려짐’으로써 바리데기는 문명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성의 자질로부터 일탈하게 되고, 자연물에 의해 보호되거나 신이한 존재들에 의해 인도됨으로써, 그들의 음식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길러짐으로써 바리데기는 자연적이고 신이한(초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적이고 문명적(이성적)인 존재의 자질들을 비켜가는 ‘탈아’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뒷동산 후원에다 내다버리시니/**청학 백학**이 날아와서
한 날개는 땅을 갈아 누워지고/또 한 날개는 등을 밀어 누피시며/일
번 **상나무 열매를 물어다가 먹이드라.**

그 얘기는 용왕에서 점제하였으니/그 중에 유독하고 독특한 신하
가 옥함을 안으시고 황천강에다 내뜨치니/한 번을 던지시니 용서습
하는 배요/두 번을 던지시니 제소습하는 배요/삼세번 던질 적에 벌
써 용왕이 알으시고/소당같은 큰 거북이가 등을 미리내시들아/그 얘
기 점지하신 석가세존님이 팔천제자를 다리시고 선열을 하시다가/
저것이 무엇이나 안개가 자욱하고 상내가 진동하고/서기가 뻗쳐으
니 인간이 있어와두 **하늘이 아는 인간이 있고**/짐승이 있어와두 하
늘이 아는 짐승이 있으니/이란존존 가보아라 무언존존 가보아라/소
인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바리공주 서울 김종덕본 중에서

바리데기는 버려짐으로써 자연의 생명력과 신이성에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청학 백학이라는 영험한 동물과 접촉하고 그들에게서 생명을 연명할 음식을 받아먹음으로 해서 그 영험함이 깃들게 되는 것이며, 성역화 된 강이나 산,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신이한 존재들, 석가세존이나 용왕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발견되어 인도되고 ‘하늘이 아는 인간’, 즉 일반적인 인간이 아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내 놓은 인간으로 호명되는 것이다. 결국 바리는 버려짐으로써 ‘하늘이 아는 인간’, 다시 말해 세계를 구원할 여성 영웅으로서의 존재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② ‘幽界’의 화소-죽음의 위계적 하방세계와 생명 연대적 존재계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수(약물)를 찾아 바리데기는 상징적 현실세계를 떠나 유계를 탐험하게 된다. 이때, 약수가 있는 유계 공간들은 이본들에 따라 서천서역국, 삼신산끝, 시황산, 시영산, 대왕산 바위끝, 세천세국 등으로 표기된다. 그런데 기존 논의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리데기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고난의 탐험을 하는 유계 공간을 죽음의 공간으로 확정하고 그 공간성을 통해 바리데기를 고통스러운 ‘죽음을 짊어진 여성¹²⁾’으로 규정하곤 했다. 죽음과 죽음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이러한 논의의 확장은 바리데기를 떠받치고 있는 무속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무속에 나타난 우주는 천상·지상·천하로 삼분된다. 이들 3개의 우주층에는 각기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천상이나 지하에도 지상과 꼭 같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천상에는 천신을 비롯한 일신·월신·성신과 그 시종신들이 살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지배하며, 지상에는 인간과 금수, 그리고 산신을 비롯한 일반 자연신이 살고, 지하에는 인간의 死靈과 그 사령을 지배하는 冥府神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¹³⁾.

12) 이영섭, 「바리데기 시학의 문화적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제17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366쪽.

13)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297쪽.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죽음은 알지 못하는 세계, 따라서 알 필요도 없는 세계로 언급된다. 유교담론과 근대담론은 샤머니즘적 전통을 배제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공자는 선진편에서 귀신을 섬기는 것과 죽음 이후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이러한 유교적 담론은 영적 세계와의 회통이 불가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세계와의 단절은 ‘나’의 확장으로서의 민족적 ‘우리’를 상징할 수 없는 세계이다. 이는 우리의 먼 조상들과 그들의 고유한 사유체계들과의 단절, 맥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교담론과 근대담론은 단절과 분리의 형태로 소통을 차단한다. ‘나’는 정신적 교감을 통해 민족적 타자들과 교통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나는 종족적 ‘나’, 즉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된다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먼 존재들이 동질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며, 같은 메시지의 기원을 노래한다는 것이다. 현실중시의 유교적 세계관은 죽음의 세계, 죽음의 공간을 부정한다. 이러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죽음을 삶의 부정적 표지로, 또는 지하의 하방세계, 암흑세계의 일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무속적 관점에서는 죽음은 삶과 병존하는 또 하나의 세계이며, 천상이나 지상과 같이 신이 관장하는 삶과 연대하는 존재계로 파악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막연하게 지상에서 수평으로 가는 먼 곳이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모랭이’(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결국 저승이란 지상의 수평공간상에 위치한 아주 먼 곳으로 추정된다¹⁴⁾. 따라서 죽음은 삶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삶의 연속이라는 깨달음, 망자가 도달한 저승이 이승의 근본이 되어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인식은 무가의 지배적 사고이다¹⁵⁾.

무장승이 뒷동산에 물구경 하고 가라 하오시니/물구경도 경황이

14) 앞의 책, 297-298쪽.

15) 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116쪽.

없나이다/이렇성 떠오는 배 무슨 배가 떠올니까/(생략)/또 한 배는
 무슨 배로성니까/그 배는 이 세상에 나갔다가 남의 가정 들어가서/
 손을 못 이어 주어서 무자귀신 되어 가는 배로성이다/그러면 또 한
 배는 무슨 배로성니까/김씨에도 열두 혼백 남망재씨 칠공주 뒤를
 따라 극락세계 연화되면/부처님 기자되어 가시는 날이로성이다/(생
 략)/광풍이 건듯부니 무장승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같이 가시이다/
 그리며는 그리하라 하옵시고/어린 아기 업으시고 자란 아기 걸리시
 고/금두명에 물을 떠서 약여수를 떠서/금질땡 짊어지고 한 곳을 가
 노라니/(생략)/남문 열고 바라진다 계명산천 밝아온다

-바리공주 양주 조영자본 중에서

‘하늘 아기 내버린 죄’로 왕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삼신산 불노초
 배곡산 약려수를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위의 장면은 무장승에
 게 약수물을 받은 바리데기가 이승으로 돌아가려 하자, 무장승이 꽃구경
 과 물구경으로 바리데기의 돌아감을 지연시키는 대목이다. 바리데기는
 이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는 배들을 보며 무장승에게 무슨 배들이냐고
 묻는다. 이 배들은 이 세상의 사람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배이다.
 이 세상에서 자식 하나 못 낳고 무자(無子)귀신이 된 사람의 배, 극락세계
 로 연화되어 가는 혼백들의 배 등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배를 통해
 또 다른 세계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유계 공
 간의 무장승은 반대로 바리데기를 따라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오
 게 된다. 이때 바리데기는 약여수(생명수)를 갖고 幽界로부터 이 세상으
 로 나옴으로써 유계로부터 온 것이 세상의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
 는, 삶을 지탱하는 것임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계가 이
 물질적 현실계를 떠받치는 생명적 존재계, 즉 물질적 현실계에 생명력을
 전파하는 존재계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삶과 죽음을 경계
 짓지 않고 삶과 죽음을 위계 짓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삶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와 연계되어 있고,

죽음의 세계는 삶의 공간을 떠받치는 생명의 시원·현실에서 죽음에 처한 인간, 오구대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물)은 유계 공간에만 존재·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죽음과 삶은 연계되어 있고 소통되는 구조임으로, 인간들은 삶의 집착으로부터 놓여나게 되고, 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계와 죽음 세계의 타자들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데기도 유계 탐험을 통해 이 세계에서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타자들을 위한 만신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③ ‘효’의 화소·제도화된 희생의 덕목과 자연스러운 삶의 본능

버려진 바리데기는 대왕 부부의 슬하에서 길러진 언니들 대신 대왕 부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유계 탐험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바리데기의 행위는 ‘효’라는 덕목으로 숭상된다. 그러나 그 ‘효’를 보는 관점은 유교적 측면에서 제도화된 윤리로서 접근하는 경향성을 띤다. 그것은 바리데기를 가부장제의 희생자로서만 표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¹⁶⁾. 우리 문화장에서 바리데기와 심청이는 유교적인 효를 완성하는 고유의 이름으로 자주 환기된다¹⁷⁾. 유교가 남성적 위계질서로 줄을 세우며 가부장사회 속에서 남성들의 주류종교로서 기능할 때, 엄격한 가부장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무속은 여성들의 비주류 종교로서 모계 사회와 대지모 신앙에서 기원하는 여성의 신화와 여성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교가 동아시아의 국교로 정착되면서 고대 신화 속의 여성은 가장 심하게 왜곡되는 지점이 된다¹⁸⁾.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들은 현모양처로서의 어머니, 또는

16) 서대석은 “『바리공주』를 유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면서 그 당위성이 ‘효’라는 관념에 입각해서만 인정된다.”고 언급한다(김환희, 「바리공주 이야기 속의 전통과 현대」,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편, 『동화와 신화』, 새미, 2002, 45쪽). 또 박동기는 “전통적 가치의 희생자인 바리데기가 가부장제의 첫 번째 윤리도덕인 효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지극히 역설적이다.”고 파악한다(박영기, 「서양신화와 한국의 무가」, 『동화와 번역』 제17집, 2009.6, 56쪽).

17) 김소륜, 「탈주하는 기억, 희생을 거절하는 딸들」,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어문학회, 2008, 174-186쪽.

효심이 지극한 딸로 구현되는데, 바리데기를 효심이 지극한 딸로 파악하고, 희생과 억압의 지점으로 읽는 것은 바리데기와 같은 여성들이 가족(가부장제)=국가에 의해 수난 당하는 존재¹⁹⁾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때, 바리데기의 '희생'에 의해 효가 실현되었으므로, 즉 아버지를 살려 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바리데기의 '효' 화소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담론의 확산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의 엄격한 규범에 의해 강요된 효와 중국의 유교 영향,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에 의한 효가 아닌, 한국 고대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런 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유교의 효는 지나치게 강요하고 규범화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고 덕스러워야 할 효가 무거운 짐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바리데기를 읽을 때, 우리가 유교적 관점의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바리데기의 효를 분석하게 되면, 여성의 수난, 희생으로 '효'를 해석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효경』에는 효도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섬뜩한 기사들이 많다. 이를테면 팔뚝 살을 베어 약에 섞여 달여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다는 기사, 홀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식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어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기사²⁰⁾ 등이 그것이다. 바리데기의 아버지는 버려진 딸을 다시 찾아와 자신의 생을 지키기 위해 이 세계의 보통 사람이라면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딸을 보내 희생의 약을 구하게 함으로써, 어버이라는 존재만을 기억하고 강요하는 유교적 관점의 효를 투영하게 된다. 이러한 '효'에 대한 해석은 우리 고유의 '효' 사상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역사시대의 유교적 관점의 개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 임채우, 「고대 동양의 여성숭배사상에 대한 고찰」,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2007.5, 270-288쪽.

19) 최현식, 「바리데기를 꿈꾸는 시」, 『현대시』, 2001.5, 63쪽.

20) 윤병렬, 『감동철학 우리이야기 속에 숨다』, 이담, 2009, 213-228쪽.

애미다 애미라니 그 뉘기요/어매 같으면 어데 봄시다/나도 인간
으로 태어났소/느그 부친이 너를 낳고 심화 중에 병이 났으니/약물
을 질러다가 디리면 만병 회춘한다 허니/어찌냐 너 생각은 시양산
약물을 잡아야만/느그 부친이 살지 이 성에는 약이 없단다/베리덱이
허는 말이/제를 낳고 심화중에 병환이 나서 죽게 생겼다 현디/제가
어찌 아니 갈 수가 있소

-바리공주 보성 김고분 본 중에서

보성 김고분 본에서 바리데기는 그 아버지인 오구시왕이 죽이려고 여
러 가지 방법으로 시련을 주어도 바리데기는 죽지 않고 잘 자란다. 다른
본과는 다르게 김고분 본에서 바리데기는 멀리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구시왕에 의해 제공되는 죽음의 위험, 예를 들어 엄동 설한에 얼어 죽
으라고 베옷으로 감아놓는 다든지, 연못가에 빠져 죽이려고 한다든지 등
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데기는 아버지인 오구시
왕님이 병이 들어 시양산 약물을 구해 오길 주문하자 핑계를 대며 거절하
는 여섯 언니와는 달리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약물 구하는 길을 떠나기로
작정한다. 이는 어버이의 죽음 앞에서 과거의 원망과 미래의 고난을 모두
극복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어버이와의 화해를 통해 언니들
과는 다른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효’ 이행을 통해 바리데기
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바리데기의 효는
오구대왕을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리데기의 효는 자신의 존
재를 근거 짓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바리데기는 버려졌음에도
그 버린 아비를 살릴 효 이행을 감행함으로써 상실될 수 없는 내재적
본능으로서의 ‘효’의 의미를 제공한다. 노자는 “육친이 불화하니 효도다
자애다 하는 것이 있게 되었다.”(도덕경 18장)고 하면서 “자연의 도가 아
닌 것은 금방 그치고 만다.”(도덕경 55장)고 했다. 제도로 만들어 놓은
윤리적 덕목으로서의 ‘효’는 금방 그칠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여섯 공주
는 ‘곱게 미겨 곱게 키운 자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약물을

구하러 갈 수 없다고 거절한다. 대부분의 효 이행 거절의 이유는 출가의 인이라 친정아버지 병구완으로 시집, 즉 남편의 집안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부장제적 제도에 의해 강요된 시댁에 대한 다른 ‘효’ 이행을 근거로 육친 관계의 ‘효’를 거절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제도나 체계에 의해 강요된 육친 관계의 불화를 드러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종용하는 아버지는 제도적 윤리적 덕목으로서의 ‘효’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 ‘효’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가상적인 것으로 또 다른 만들어진 ‘효’, 즉 가상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바리데기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양육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의해 죽음의 시련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이행의 길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어떤 제도화된 개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절대적 ‘효’는 아비 살리기를 거절할 어떤 근거나 이유를 가질 수 없다. 아버지는 아들을 선호하는 남성적 부권 이데올로기의 국가 체계에 의해 자식인 바리데기와 불화하지만, 바리데기는 그러한 아버지와 불화하지 않고 고난의 구약여정을 시작한다. 바리데기의 ‘효’는 아버지의 법에 의해 길러진 것이 아니기에,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길러진 본성적인 것, 또는 아버지의 법이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 본성 그대로 간직된 것으로 바리데기 자신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것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의 도, 즉 자연스러운 효, 자연스러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저절로 되는 마음을 드러내는 ‘효’의 미덕이 살아있는 지점이 된다. 제도화된 ‘효’는 외부로부터 강요된다는 측면에서 자아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지만, 본성적·자발적 ‘효’는 자식의 부모·되기를 거쳐 자아를 완성해가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2) 秀史적 담론의 발견과 확장

본 장에서는 역사시대의 문명을 비판하는 지점으로써 우리 신화인 바리데기가 현대문학장에서 어떻게 다시 쓰여 지고 있는 지 살피게 된다.

이때 본고는 역사시대 문명사적 무의식을 비판하는 수사라는 개념의 확장을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수사’라는 개념은 역사시대 이전의 신화 세계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수’는 대지모신의 자궁공간을 상징하며, 여신체계와 연관된다. 이는 남성 중심의 역사시대와는 달리 생태계의 다양한 주민들(동물이나 곤충, 식물의 여러 종들)과 그들의 독자적인 생태를 인정하며, 사람들도 그러한 종들의 일부로 다루는 ‘나라’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이 ‘수사’는 ‘선사적인 것’과 ‘반역사적인 것’ 그리고 ‘후사적인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다. ‘수사’는 ‘역사’를 벗어난 ‘역사’이며, 기존 ‘역사’의 지층 속에서 버려져 훼손되거나 억눌린 채 파문혀 소외된 ‘역사’이다²¹⁾. 다시 말해 수사(秀史)라는 관점은 역사에서 문명적 시선에 의해 배제되고 은폐되었던 많은 타자들을 발견함은 물론 그러한 문명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논의는 바리데기 신화 속에 내재해 있는 수사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수사적 신화소를 규정하고 이러한 수사적 신화소가 현대 텍스트들에서 어떻게 문명의 폐해들을 드러내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적 신화소들은 여성-탈주자, 타자-되기, 자아-찾기, 국가거부 등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바리데기 신화 안에는 역사시대의 많은 문명적 폐해를 넘어갈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할만한 여러 가지 신화소들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현대문학장에서 다시 쓰여 지고 있는 바리데기 이야기들을 통해 볼 때,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신화소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① 여성-탈주자: 죽음에 이르는 문명·국가 가로지르기

바리데기 신화를 통해 우리는 문명과 자연, 현재와 현세 너머의 경계가 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여성 주인공은 제도화된 문명의 너머,

21)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자연의 세계에서 길러지고, 현세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여기의 병을 치유하게 된다. 버려짐으로써 자연세계와 제도 밖의 신이한 존재로 키워진 바리데기는 지금-여기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현세와 현세 너머의 세계를 가로지르게 된다. 바리데기 신화에서 바리는 아버지의 국가에서 버려짐으로써 탈-국가적 존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버려짐으로써 경계를 가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정신과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송경아의 <바리 3부작> 중 바리-불꽃은 그러한 버려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오구대왕은 자손의 변성과 영원한 생명을 욕망함으로써 생산하기만 하고 멸할 줄 모르는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이에 신탁은 바리를 버림으로써 구원될 수 있다고 명한다. 결국 바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버려져야만 했고, 그 버려짐을 통해 삶과 죽음, 여기와 저기, 민족과 국가, 자연과 문명의 경계를 넘는 존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남성-탈주자, 즉 고대 신화의 남성 영웅들은 시련을 통해 기존 세계의 복원을 완성하는 반면 여성 영웅인 바리데기는 시련을 통해 기존 세계의 문제를 회의하고, 그것으로부터 기존 세계의 문턱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국가로부터 버려짐으로써 여러 국가들을 경험하는 여성-탈주자 바리를 초점화한다. ‘북선’, ‘중국’, ‘영국’의 경계를 넘으면서 바리는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게 된다. 어느 국가도 바리와 같은 주변인-여성이 정착할 수 있는 영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주변인-여성은 배고픔과 차별, 편견과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반복적으로 넘어야 한다. 결국 문명적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도 주변인-여성을 배려하고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이 주변인-여성에게는 무기력한 아버지 병든 아버지가 될 뿐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 국가는 자신이 버린 딸에게 생명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아버지와 닮았다. 국가의 폭력성은 끊임없

이 국민들을 한반도 밖으로 내몰아 바다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내몰아왔다²²⁾. 황석영의 여성-탈주자인 바리데기는 그러한 편견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가들의 경계 넘기를 통해 결국 어느 문명국가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또한 바리데기는 문명의 중심 국가인 영국에서 중층화 된 타자성을 지닌 존재로 표기됨으로써, 즉 돌아갈 국가가 없는 조선인(동양인)이며, 비자나 노동허가증도 없는 이방인이며, 문명의 침입자 아랍인을 남편으로 둔 여성이며, 에밀리 부인과 같은 백인들의 부귀하고 귀족적인 삶을 알 수 없는 유색인종의 표지로서 바리는 우리 시대 주변적 존재들이 겪고 있는 중층화된 차별과 위계의 현실을 문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② 타자-되기: 번역될 수 없는 타자들과 소통하는 매체

바리데기가 여러 지옥을 지나면서 만난 영혼들²³⁾을 시왕세계, 극락세계로 천도하게 되는 부분은 바리데기 서사무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눈 뺀 죄인’, ‘팔 없는 죄인’, ‘다리 없는 죄인’, ‘목 없는 죄인’들은 바리에게 제도하여 달라고 애원하고, 바리는 석가세존으로부터 받은 낭화를 이용하여 극락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바리공주, 서울 문덕순본 등 다수) 이와 같이 지옥을 떠돌던 죄인들의 악마구리 같은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극락으로 천도하는 장면은 바리를 한 부모 밑의 일곱 번째 딸에서 만인(민중)의 구원자로 탈바꿈하게 하는 지점이다²⁴⁾.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씻겨줌으로써 바리데기는 타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바리는 버려짐으로써 자연과 신이한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현실세계의 아버지와 화해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유일한 여성이 되며, 지하세계 여러 죽은 죄인들의 애원을 들어줌으로써 삶과 죽음을 소통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

22) 김소륜, 앞의 책, 185쪽.

23) 김태곤, 「진오귀 무가」, 『한국무가집1』, 원광대 출판부, 1971, 77-78쪽.

24) 박영기, 앞의 책, 55-56쪽.

가 다차원적 생명 존재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매개체임을 확인하게 된다.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그러한 타자들의 마음을 읽고 영혼과 교통하는 바리데기의 존재성을 초점화한 텍스트이다. 『바리데기』에는 문명세계에서 배제된 타자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중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국 공안 당국에 쫓기는 조선 사람들, 영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들 등. 바리데기는 말을 할 수 없는 숙이 언니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칠성이와 소통하고, 중국 국경지대에서 할머니마저 잃고 헤매던 중 굶어 죽은 원귀들의 한을 들어주고, 중국에서 만난 상 언니와 영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령들의 존재들을 목격하면서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아프게 통과해 간다.

나는 긴 어둠의 나날 속에서 껍데기인 내 몸을 벗어나곤 했다.
칠성이가 인도하는 대로 달빛처럼 하얀 길을 따라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나중에 잠깐 낮이 돌아와 살피면 저승이 이곳과 똑같은 장
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리데기는 점차 번역될 수 없는 언어를 가진 자들과 소통하게 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시대의 문제를 초점화하게 된다. 굶어 죽은 영혼들이나 쫓겨서 동사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상 언니)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바리데기는 북한의 식량난, 중국 공안당국의 인권유린, 밀항하는 다국적 인종들, 문명의 국가 영국에서 숨어사는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미국과 아랍 간의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 종교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등을 드러내게 된다. 결국 『바리데기』는 문명사의 진행으로 생겨나게 된 많은 타자들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타자들과의 ‘말-걸기’를 통해 현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명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강은교의 『바리데기의

여행 노래」는 타자의 ‘말-듣기」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암울함을 표출한다. 황천무가 바리데기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노래는 ‘산쓰러지는 울음’, ‘울고 있는 신령님’, ‘곳곳에서 여자들은/무덤을 가리키며 울’고, ‘구슬픈 승냥이 울음소리’ 등 울음소리가 가득한 텍스트이다. 이 타자들의 울음소리는 바리데기로 하여금 여행을 지속하게 만든다. 누가 자기를 찾는 것 같아 떠난 여행은 나(바리데기)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의 실체를 향한 여행이다. 들리지 않는 현세의 목소리를 찾아 나는 여행을 계속한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별들이 사라지는 상황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을 뚫고 ‘아직 늦지 않아」라는 누군가의 중얼거림을 믿고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바리데기는 생명력 상실의 시대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사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과정 중의 주체로서 단절의 불모성을 폐기하고 소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

③ 자아-찾기: 사랑의 발견과 모성의 완성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바리데기는 ‘효」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인공 바리데기가 고난을 감수하는 구약여정의 서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바리데기를 현대문학장에서 다시 쓰고 있는 김선우의 동화 『바리공주』(2003)는 무장승과의 결합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자아로서의 바리공주의 면모를 강하게 발현시킨다. 또한 이 동화는 무장승을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로 구성함으로써 바리공주와의 결합을 통해 구제되는 측면을 의미 있게 다루기도 한다.

무장승은 삼십 년 전 하늘에서 이곳으로 쫓겨 내려올 때를 생각하고는 흠칫 몸을 떨었다. 사소한 실수였으나 하늘의 법도는 무장승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곳으로 쫓겨 내려와 인간의 몸을 처음 받고 약수 지키는 일을 명받았을 때 하늘이 약속한 바는 백년이였다. 백년을 꼬박 채워야 하거나 삼십 년을 채운 후 인간세상의

배필을 만나 아들 삼형제를 얻으면 죄를 탕감하여 승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바리공주는 무장승과의 결합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자아-찾기의 절정에 도달하며, 무장승을 구제함으로써, 남성-신격을 구제하는 여성-신격의 우위를 복원²⁵⁾하게 된다. 또한 이 결합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생산하는 모성을 완성한다. 이는 없던 것이 새로 일어난다는 ‘발’의 어원을 가진 바리데기의 명칭과 관련하여 바리데기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된다. 현실의 죽음을 소생시키는 생명적 존재로서의 의미와 새로운 생명탄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생산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표출하는 것이다. 이 동화에서 바리데기는 가부장제에 중독된 사회 안에서 효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궤적을 통해 효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는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²⁷⁾, 즉 문명세계 여성이 경험했던 모든 억압과 소외, 배제와 착취 등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김선우의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는 약수물을 얻기 위해 신목 앞에 정좌하나, “나를 버린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수 구하기를 청한 내 마음 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이 남아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신목이 열리지 않고 약수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아버지의 범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기억이 상처가 되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리공주는 무장승에게 먼저 혼인을 제의한다. 무장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여성이 되고, 아이를 셋이나 둔 어머니가 되는 주체적인 과정을 통해 ‘바리공주’는 문명세계로부터 경험했던 상처를 스스로

25) 원시모계사회를 배경으로 대지모나 지모신 혹은 천지창조의 주인공이었던 여신들이, 전재오가 자연채해를 겪으면서 강한 물리력을 가진 부권이 강조되었고 점차 남신으로 변질되거나 남신의 배우자로서 취급되거나 혹은 하위의 女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임채우, 앞의 책, 270쪽).

26)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70쪽.

27) 임금복, 「새로 쓴 ‘바리공주’」,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8집, 2005년 12월, 285-286쪽.

치유하는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고대 신화속의 어머니로서의 여신은 유교에서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현모양처로서 구성되지만, 무속에서의 여신은 주체적 여성으로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현해감으로써 현모양처로 규범화된 어머니로부터의 자아 해방을 비롯해 타자의 해방을 책임진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주의나 국가체제 안에서 규범화된 모성은 자식을 잘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고 남성을 보조하는 면모를 중심으로 자기가 속한 영토의 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김선우의 동화 바리데기에서 바리데기는 “버리고 버려지고 낳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가는 모든 모습 얻은 것들의 운명이 서러워²⁸⁾” 생명수 구하는 일을 자청하는 장면이나 아버지 오구를 살리고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저는 버려짐으로써 사랑을 얻은 존재이니 버려진 것들의 원혼을 이끄는 이가 되겠²⁹⁾”다고 천명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바리데기가 진정한 사랑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영토를 벗어나 타자들의 영토를 포용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기-찾기를 완성해 가는 큰(대문자) 어머니가 됨을 목격하게 된다.

④ 국가의 거부: 국경 없는 타자들의 ‘나라’

바리데기 신화에서 바리는 약수물을 구해와 아버지를 살리지만, 남성적 유교 이데올로기의 결정체인 아버지의 국가에 귀속, 귀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타자들의 어머니로서 문명적 유한한 존재성을 탈피하여 영원히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가 타당하게 작용하는 본은 ‘서울 반승업본’ 같은 경우이다. “나라엔 충신경 부모엔 효자경 동기간에 우애경”을 설파하는 대목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법이 작동하는 국가의 면모를 확인하게 된다.

대왕님 부끄럽사오나 이번에도 딸아기를 낳았으니 어찌 하오리
 까/ 대왕님 딸아기 소식 듣고 갑자기 인색하여 지며 땅을 치고 한탄

28) 김선우 글·정경심 그림, 『바리공주』, 열림원, 2003, 90쪽.

29) 위의 책, 189쪽.

한다./ 내 앉았던 팔용좌와 팔용옥쇄를 누구에게 전장하며/일국천하
누구에게 물려주랴.(생략) 칠공주 강보에 쓴 채로 뒷동산 반석위에
기척 없이 내다 버려라 명령 사시드라./ 이때에 부인이 비관하야 칠
거지악중에 무자절손지죄명을 생각하며/식음을 전폐하고 대성통곡
을었더라.

(통영 박복개본)

대왕은 딸과 아들을 구별하는 가치체계를 드러낸다. 아들만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고 딸은 국가를 물려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부끄러운 존재이다. 여자가기 때문에 부끄럽고, 버려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법체계는 부모 자식 간의 인륜과 생명존중 사상 등을 폐기하고 유교적 가부장제의 규율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법이 작동하는 국가는 남자와 여자, 중심과 주변, 위와 아래 등의 위계적 가치체계를 통해 현실적으로 버려지고 억압되는 주변적 존재들을 지속적으로 배태하고 확장하는 곳으로 ‘효’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위계급을 규율하는 제도들을 통해 유지되는 남성적 유교주의 체계와 다르지 않은 곳이다. 구약여행의 유계로부터 다시 돌아온 바리는 이러한 문명적 역사시대의 유물인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송경아의 바리-돌아오다는 그러한 구약여행의 ‘유계’ 탐험이 가진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바리가 국경 없는 세계를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잘 드러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바리는 구약여행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면을 속속들이 알아버리게 된다. 무너져가는 세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바리에게는 그들이 생기게 된다. 송경아의 삼부작 <바리데기>에서 유계여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리가 고통과 환멸과 실망을 대면하게 된 지점이다. 그 고통을 통해 바리는 귀환과 동시에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의 몸에 흐르는 나쁜 피를 정화시키는 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세계의 혼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세계의 혼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기껏해야 제가 배워온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몸 속에 있는 나쁜 피, 그 병균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어느 곳에 가서 자리잡을지 저는 몰라요. 그것이 자리잡는 곳, 거기에도 버려졌던 일곱 번째 딸이 있어서 그 딸이 다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불라국을 치유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곳에 병을 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쁜 피, 병은 세계(국가-불라국)의 혼란과 일치한다. 불라국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바리는 아버지의 나쁜 피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 결국 지금-여기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바리는 다른 곳에 병을 심게 되는 것이다. 그것에 죄의식을 느낀 바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떠남을 준비한다. “단지 병을 옮겨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남을 시작함으로써 ‘불라국’이라는 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고통스러운 삶, 그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황석영의 『바리데기』가 현대 여성-탈주자를 통해 무기력한 아버지-국가, 또는 폭력적인 문명적 국가를 폭로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확장했다면, 송경아의 3부작 중 「바리-돌아오다」는 바리의 다시 떠남을 통해 이곳과 저곳의 경계해체를 제시한다. 경계 위에서의 치유, 즉 생명수 구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경계가 해체되었을 때 바리의 생명수는 그 열린 길을 따라 순환하게 됨으로써 세계 전체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는 어느 한 국가의 치유를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계 전체를 위해 떠남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 신화 바리데기 다시읽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읽었거나 문명적 관점에 기대어 해석했던 ‘버려짐’의 의미나 유계여행, 그리고 효-이행을 우리 신화 속에서 또는 무속의 세계관이나 우리 고대의 정신체계로부터 그 의미를 새롭게 타진해보려고 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신화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형적 사고를 탐색하는 작업으로 그 의미를 지닌다. 여러 다양한 바리데기 신화의 이본 텍스트들의 다양한 결들을 세밀하게 읽는 작업은 우리의 원형상징이나 고대 정신성을 찾아내는 또 다른 작업과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신화가 지녔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문명사적 문제들을 다양하게 담론화하고 다시 쓰여지고 있는 우리 신화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면서 작동하는지 드러내게 된다. 남성중심주의적 문화는 단지 엔트로피가 가득 찬 죽은 사회를 만들 뿐이다. ‘주변’으로 밀려난 타자를 감싸고 그들을 위해 ‘발성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모성적 문화의 창세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³⁰⁾ 이 때,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문명사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바리데기와 같은 모성적 신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바리데기는 망자의 극락천도와 산 인간 성불시키는 만신의 몸주가 되길(대다수의 본) 기원함으로써 영적세계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현실세계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드러내는 지점이 된다. 이러한 염원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조화의 중심이 ‘인간세’라는 점인데, 이는 천지나 천인 간의 대립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 속에서의 천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³¹⁾. 바리데기는 망인의 영혼을 이상향으로 안주시킴으로써 인간 세상에 희망과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국경을 넘어 타자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많은 바리데기 ‘분신’들을 찾을 수 있

30) 김승희 글·윤석남 그림, 『여성이야기』, 마음산책, 2003, 122-123쪽.

31)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86쪽.

다. 문명세계가 만들어 놓은 많은 금(線)들을 넘어 구약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존재들에게서 우리는 바리데기의 현신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자아’를 둘러싼 모든 영토를 넘는 과정을 통해 문명이 제공한 박탈과 상실의 트라우마(버려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우리’라는 집단적 주체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문명의 시선에 의해 젠더화된 존재성을 지우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바리데기 신화가 염원하는 이상적 세계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이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바리데기 신화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본들의 차이들은 우리 고대의 원형 사상, 세계관 등이 역사시대 다양한 외래 사상체계의 개입에 의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문학 장에서는 바리데기 신화를 차용한 텍스트들을 통해 신화 원형의 정신이 어떻게 되살려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 문학 장의 바리데기 텍스트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이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문제점들을 이 바리데기 신화를 통해 어떻게 문제시 하며, 모색하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화가 갖고 있는 현대적 의의를 줄기차게 확보해가는 것이며, 우리 신화를 재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곧 문명사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해결이 결국 우리 고대적 사고, 우리 신화적 상상으로부터 도래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기본자료

- 강은교, 『풀잎』, 민음사, 1997.
김선우 글·정경심 그림, 『바리공주』, 열림원, 2003.
김진영·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1·2』, 민속원, 1997.
송경아, 『엘리베이터』, 문학동네, 1998.
홍태한·이경엽, 『서사무가 바리공주전집3』, 민속원, 2001.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4』, 민속원, 2004.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저서 및 논문

-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편, 『동화와 번역』, 동화와번역연구소, 2009.
_____, 『동화와 신화』, 새미, 2002.
김소륜, 「탈주하는 기억, 희생을 거절하는 딸들」,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어문학회, 2008.
김승희 글·윤석남 그림, 『여성이야기』, 마음산책, 2003.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연구』, 세종출판사, 2005.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김태곤, 「진오귀 무가」, 『한국무가집1』, 원광대 출판부, 1971.
_____,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_____,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김행숙, 「‘여성-되기’와 ‘시-하기’-김혜순의 시론에 대한 검토」, 『인문과학 논집』 제18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신범순, 『노래의 상상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윤병렬, 『감동철학 우리이야기 속에 숨다』, 이담, 2009.
- 이경하, 「한국 구비서사시의 ‘문명’기억과 젠더정치」, 여성주의 인문학연합학술대회, 2012.
- 이영섭, 「바리데기 시학의 문화적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제17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9.
- 임금복, 「새로 쓴 ‘바리공주」,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8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05.
- 임재해 외,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 임재해, 「설화의 현장론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986.
- 임채우, 「고대 동양의 여성숭배사상에 대한 고찰」, 『온지논총』 제16집, 온지학회, 2007.
- 최현식, 「바리데기를 꿈꾸는 시」, 『현대시』, 2001.
- 허버트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의 문명』, 나남, 1994.
- 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 佐佐木宏幹, 김영민 역, 『샤머니즘의 이해』, 박이정, 2001.

〈ABSTRACT〉

Myth of the Nation, Deep Sociology of the
Escape-Discourse:
Rewriting on the Myth of Baridegi

Yun Jung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re-read variants of the Baridegi myth and study Baridegi texts that is written back in contemporary literature field. It deviates from semantic analysis as a single structure. we may have read wrong the Baridegi myth by a civilized eye. The discarded-motif, the mystic world-motif and filial piety-motif, all three are central unit in the Bariegi myth. When digging around these units, we are well recognized our unique system of values. Also Baridegi myth is involving motifs to provide how to overcome the evils of civilization.

Rewriting Baridegi is underway using these various motifs in today's modern literature field. The examples of such a rewriting are Suk-young Hwang's *Baridegi*, Song Kyung-ah's <Bari-trilogy>, Kim Sun-woo's fairy tale *Bari-Princess*, Kang Eun-gyo's "Baridegi's travel songs", etc. Each of these contemporary texts are focal issues of modern civilization through motives of the Baridegi myth.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woman-defector, the other-being, self-searching, denial of nation, etc as a significant motifs. The contemporary texts that are made by these motives raise questions of modern civilization and look for ways to overcome. It also would mean the emergence of another variants.

Key words : discarded-motif, mystic world-motif, filial piety-motif,
woman-defector, other-being, self-searching, denial of nation,
Baridegi, civilization, Su-story.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 / 게재확정일 :
